

뉴질랜드ACG, 학술교류 방안 협의



고구려대학교는(설립자 김광아) 지난 2월 9일 고구려대학교 회의실에서 뉴질랜드 ACG Education Group 톰 파커 이사장 대표단을 초청해 두 대학 간의 학술교류협력을 논의했다. 이날 양 기관은 교육과정운영과 학생 교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상호 교육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로 했다.

톰 파커 ACG Education

Group 이사장은 “양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학술·문화적 교류 등 상호발전을 도모할 것이다”면서 “고구려대학교와 진행되는 인턴십 교류 프로그램에 뉴질랜드의 많은 학생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6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해외글로벌인재육성 및 학생 인턴십 교류 강화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1985년 설립된 뉴질랜드

의 ACG Education Group은 뉴질랜드 여행 및 관광 전문교육 기관으로서 7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다.

김형배 고구려대 총장은 “지식과 실무 능력을 고루 갖춘 국제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는 우리 대학의 모습을 이들 대학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류 협력을 통해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도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이강희 기자

고구려대학교 도서관 지역주민 개방

고구려대학교는 금년 2018년 3월부터 고구려대학교 도서관을 나주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고구려대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기간은 2018년 3월 ~ 2019년 2월까지로 신분증을 지참한 나주 시민이라면 도서대출서비스 및 일반열람실을 자유이용 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평일 자료실 09시 ~

18시, 열람실 08~ 22시 토요일 자료실 09시~17시, 열람실 08시~22시이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지역대학과 지역주민이 연계하는 지역복지를 실천하는 계기가 마련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도서정보와 정기간행물을 열람 할 수 있게 된다.

/ 이강희 기자

고구려대학교, 전직원 대상 폭력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성 문화 인식개선 및 상호존중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도모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는 지난달 31일 2층 소강당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성 문화 인식개선과 상호존중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교육은 대학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소속강사인 백희원 전문강사가 강의를 실시했다. 백희원 강사는 성폭력·성희롱의 정확한 개념 이해와 관련 법규 설명, 성폭력·성희롱의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김형배 총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치관 확립과 서로를 존중하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폭력 없는 행

복한 조직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구려대학교는 매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기관장의 책무, 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사건의 처리,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수립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고충심의위원회와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성희롱의 정의와 판단 그리고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를 열어 즐겁고 가벼운 분위기로 이어졌다. ‘웃자고한 이야기고 내가 재밌어도 1명이 기분 나쁘다면 안하는 게 맞다, 이 교육의 취지는 성희롱을 하지말자 가 아닌 배려를 하자’고 예방교육을 끝맺었다. / 박시연 기자

치매예방사업 기반 조성 위한 업무협약



고구려대학교 노인복지센터는 나주시보건소와 지난 5월 8일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한국치매예방협회 여수지회와 나주시치매예방사업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고구려대학교 노인복지센터 정석희 센터장, 나주시보건소 선해병소장, 한국

치매예방협회 여수지회 주순자 지부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치매조기발견 및 체계적 관리, 관련분야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파견, 치매교육 홍보활동 및 교류에 따른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 치매예방사업과 관련된 상호 발전과 및 우

호증진에 대한 필요 사항 등을 적극 협력해가기로 했다. 특히 고구려대학교 노인복지센터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치매 관리 전문 인력인 치매건강파트너로 양성, 지역 독거노인을 비롯한 치매 취약 계층을 위한 조기검진 등 체계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강희 기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자체교육

1차 : 3.19. 2차 : 3.26. 3차 : 4.2.

고구려대학교 노인복지센터는 2018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자체 기본교육은 총 3회기로 실시하였다. 제공인력의 윤리의식, 노인 의사소통 및 상담, 노화와 노년기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기능증진프로그램, 연계복지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행정실무 등 다양한 과목들로 구성되어, 실무자의 역량 강화와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

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나주시 보건소와의 연계로 노화와 노년기 건강관리 및 영양 관리에 대한 강의와 예쁜치매만들기와 웃음치료로 수행 인력의 힐링의 시간이었으며 아울러 2018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의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 이강희 기자



나주 주몽콜택시 효도관광여행 실시



나주 주몽콜택시 효도관광여행 실시 나주시 관내 택시회사인 주몽콜택시(회장 김충만)사원 일동은 지난 14일, 고구려대학교 노인복지센터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 35명과 함께 봄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주몽콜택시는 경제적, 신체적인 한계로 원거리 외출 기회가 적은 독거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10년째 나들이 행사를 추진하는 등 경로 효친사상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날 전북 부안군으로 발걸음을 나선 어르신 일행은 새만금간척지와 채석강 등을 돌아보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특별히 택시 종사자들의 가족으로 구성된 9명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어르신들과 동행하며 나들이 편의를 도왔다.

/ 이강희 기자

평생교육복지과 사회봉사 활동 실시

기업탐방 체험 기회



지난 6월 2일 평생교육복지과는 비룡양로원과 영광노인전문요양원에 30여명의 학생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평생교육복지과 학생들은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비룡복지재단 산하 시설인 비룡양로원, 영광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하여 기관 현황 설명을 청취한 다음 양로원과 전문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나 뵈기도 하는 등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평생교육복지과 학생들은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자격

증을 취득하게 됨으로 취업전에 사회복지 산업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있었으며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산업체 기업탐방의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이처럼 평생교육복지과 재학생들은 입학 때부터 기초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산업체 체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기르고 지역사회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역량도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강희 기자

제23회 2018학년도 입학식 거행

신입생·학부모·재학생 등 총 1000여명 참석... 신입생 1,001명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는 지난 3월 2일 본관동 5층 대강당실에서 2018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은 나주시 조재운 부시장, 김판근 나주시의회 의장 등의 내빈과 신입생과 학부모, 재학생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학사보고 △신입생 선서 △축사 △장학증서 수여 △고구려대학인상선서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형배 총장은 2018학년도 입학대상자 1,001명에 대한 입학하기를 했으며 에너지전기학부 오영균 학생이 신입생 대표

로 선서문을 낭독했다. 김형배 총장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발을 내딛은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실력과 인성을 겸비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입생들은 입학식 이후 2018학년도 대학생활 안내, 학교소개 및 주요 학사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 박시연기자





지역주민자치, 지역문화, 공동체의 활성화로 발전하자

요즈음의 한반도의 상황은 급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로 한반도와 세계는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다 급진전된 남북교류와 남북회담은 북미회담으로까지 진행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완전한 해법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해결을 위한 과정에 놓이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문화가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2018년 6월 제7회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앞으로 달라지는 한국사회의 모습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선거와 또는 이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우선, 이번 선거는 가장 재미없는 선거로 평가되어진다. 지방선거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와 투표가 진행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는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의 결과로 모든 일을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유권자의 심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역대 지방선거의 투표율에서 60%대를 기록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은 정치적 참여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표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젊은 유권자층 특히 20대의 투표참여율이 높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선거캠페인이 벌어지는 기간 동안에도 재미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이슈를 개발하지 못하였고 또 지방선거의 특성으로 지방에 한정되어 있어 지역적 관심이 보다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에 관심을 가진다면 지역공동체나 공동체의 활성화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결과를 보면 오히려 지방선거 결과 지역토착세력이 지방권력에 진입하는

결과로도 보여 진다는 것이다. 진보세력의 지방권력의 다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지역에서 선출된 권력이 역량을 가지고 역할 할지는 지켜보아야 할 관전의 포인트이다. 옥석이 가려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주민주권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심적 기능을 하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주민자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기술적으로 미디어 선거를 바탕으로 진행된 선거였다. 차량을 이용한 유세 등에 대해서 일부 유권자들은 오히려 소음으로까지 여기기도 하였다. 선거캠페인이 시작되었는데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접촉면은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대세적 흐름에 따라 유력한 후보들은 노출을 많이 하지 않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미디어선거가 실시되는 핵심은 TV토론회 등의 개최이다. 미디어를 통한 토론회 등을 앞으로 확대해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의 핵심은 생활정치라는

것이다. 주민에 밀착한 선거공약이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주민자치가 완성되는 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쉬운 예로 도로는 누가 관리하는 것인가? 지역의 도로에 대한 책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로에는 책임의 소재가 있다는 것이다.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국도는 국가가 책임이며 지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지역에서 도로와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생활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역도로의 노면상태가 좋으면 지역에 있는 차량 노후화는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생활정치와 밀접한 지방자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의 주체가 개인, 주민에게 돌아가는 명확히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발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치매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小考



특별기고

정석희 교수
고구려대학교 노인복지센터장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2012년 5월에 발족한 중앙치매센터를 2016년 9월 본격적으로 가동시켜 전국 각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발족시켜 60세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치매전수조사와 치매의 예방 및 홍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2017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이상 전국의 노인인구는 706만6201명, 이중 치매환자는 70만2436명으로 유병률은 9.94%로 나타났으며, 2018년 현재의 치매유병률은 10.2%이며,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認知)장애 환자는 199만여명(유병률 27.8%)으로 최근 5년 사이 4.3배 증가했습니다.

2018년 6월 현재 중앙치매센터에서 조사된 치매 유병률은 제주 12.1%(10,888), 전남 11.9%(47,329명), 충남 11.9%(43,402) 순으로 전남지역의 치매유병률이 전국 2번째로 높으며,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동일 인구 집단(60세이상 어르신들)을 11년간 조사한 결과, 치매 유병률이 2002년의 0.52%에서 2013년에는 10.70%로 20.6배 급증하였으며, 다가오는 2025년에는 100만, 2043년에는 200만명이 치매에 걸릴 수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불과 30년 뒤에는

다섯집마다 치매환자가 한분씩 계시게 되며, 치매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은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등 치매 관리비용이 연간 14조 7000억원으로 환자 1인당 2028만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환자 주변의 수발자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부분도 사회적인 비용부분으로 확대되고 있어 치매에 대한 사회적인 부담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100세시대, 치매로 인해 우리사회가 떠안아야 할 부담을 생각하면 이제 치매가 더 이상 환자 개인이나 가정 혹은 노인세대의 문제로만 남아 있을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주시의 경우 2017년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되어 치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예방사업에 전념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65세이상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치매전수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더불어 치매예방을 위하여 나주시 보건소는 저희 고구려대학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치매에 대한 지식과 예방을 하고자 저희 센터직원 50여명에 대해 치매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의 노인성 만성질환

과 함께 신체 비(非)활동, 흡연, 우울증 등이라고 합니다.(Norton, 2014) 그러므로 치매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매일 30분 살짝 땀이 날 정도의 가벼운 운동,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등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마을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대학, 문화원, 시니어클럽 등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뇌건강에 매우 좋다는 것을 명심하고 어르신들 스스로가 자기관리를 하는 것을 권장하며, 나주시 치매유병률이 전국 최하위를 목표로 건강한 100세시대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구려대학교신문사

이 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인 | 김형배 편집인 겸 주간 | 강철수
인쇄인 | 김선문 편집장 | 박시연
대표전화 | 061-330-7431
E-mail | cskang@kgc.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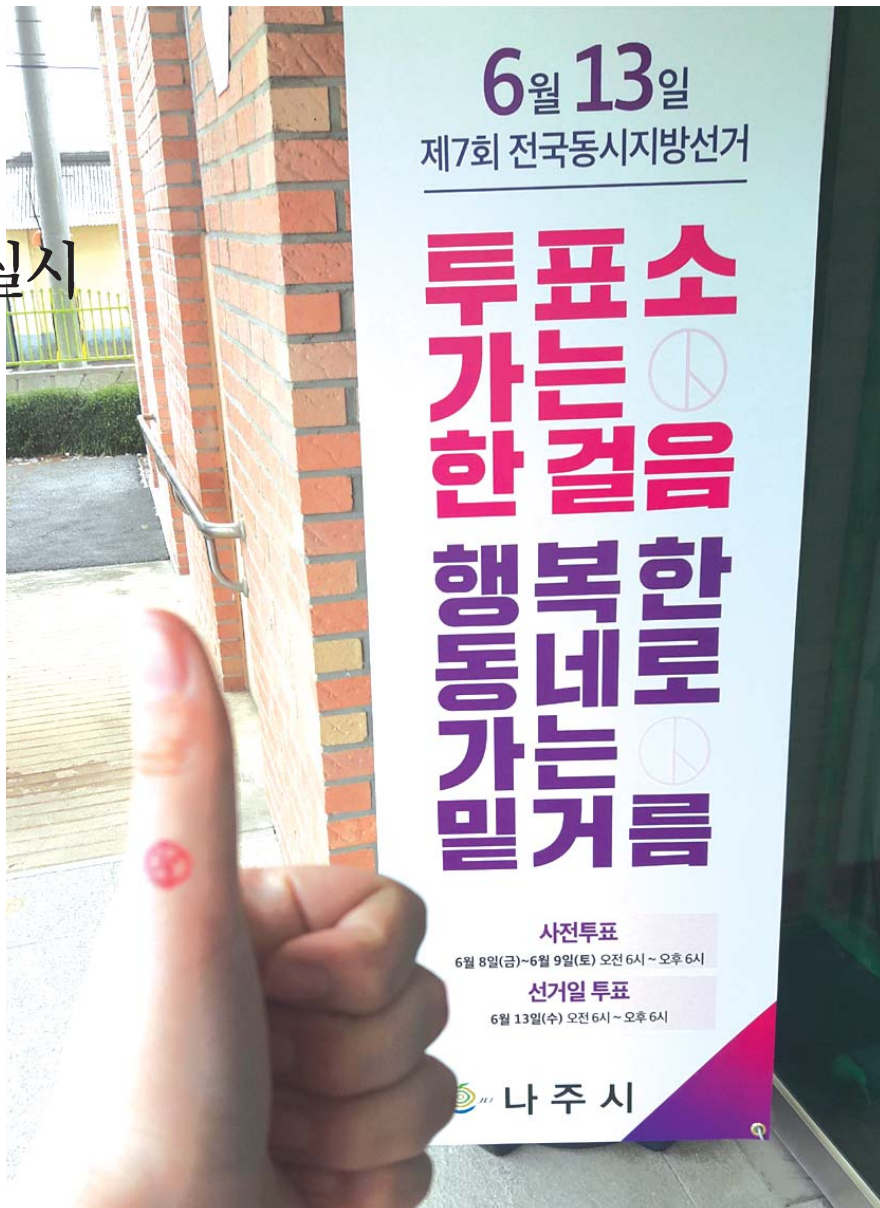
기사제보 및 원고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125
본관 321호실 고구려대학교신문사



6.13 지방선거 실시

‘2018년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에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6월 8일~9일 본 투표는 6월 13일 치러지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 까지이며 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이다. 외국인의 경우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인 지방선거에 한하여 투표할 수 있다. 고구려 대학교 재학생은 다시초등학교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할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용지 기표소 내부 촬영을 금지해야 한다. / 이강희 기자



2019년도 최저 임금 개정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키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 됐다. 최저임금 개정안 내용으로는 저임금노동자의 임금 보장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사이의 균형을 잡으려는 취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25%와 복리후생비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2018기준으로 최저임금인 약 157만 원을 기준으로, 약 40만 원을 초과하는 월 상여금과 약 10만 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된다. 하지만 연봉 약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을 통한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과 찬성한다는 응답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개정안의 통과로 2019 최저임금에 대한 변 경이 예상된다. / 이강희 기자

제11회 김우진문학제 전국학술발표대회성료

김우진 연구회-고구려대학, '목포와 김우진! 한국 근대극을 열다' 라는 주제로



김우진연구회(회장 김성진)와 협력 기관인 고구려대학(총장 김형배)이 지난 6월 16일 목포문학관에서 제11회 김우진문학제를 성료했다. 이번 문학제는 '목포와 김우진! 한국 근대극을 열다' 라는 주제 아래 전국 단위로 제13회 김우진전국백일장대회와 제11회 김우진전국학술발표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200여명의 전국초중고생들이 백일

장대회에 참여해 문예창작력을 뽐냈고, 학술발표대회에서는 김도일 조선대교수의 사회로 권순경전 구미대 교수, 최강민(우석대 교수), 강진규, 김낙현(중앙대 교수)과 100여명의 문학애호가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그동안 김우진연구회는 공연예술 관련 지역 대학 및 전문예술극단과 산학협동협약을 맺고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현장직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 연구회가 발족하면서부터 고구려대 공연예술복지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공연문화예술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다. 연구회는 전문가를 투입하여 대학생들의 현장직무를 적극 지도하고 대학은 공연기기 및 참여자 운송차량 등을 지원하고 있어 산학협동협약의 모델로서 평가받고 있다. / 박시연 기자

2018년 [파란사다리]

해외파견 프로그램 선발

고구려대학교에서 2018년도 [파란사다리] 해외파견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했다. [파란사다리] 프로그램이란 자기 개발과 진로개척에 꿈과 열정을 지닌 대학생에게 전북대학교와 한국장학재단이 공동으로 해외 연수 경험을 지원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으로써 파견 기간은 2018학년도 하계방학 중이고 파견 국가는 미국, 캐나다, 중국, 필리핀+베트남 또는 필리핀+인도네시아 6개국 7개 대학이다.

[파란사다리] 프로그램 안내

1. 파견기간 : 2018학년도 하계방학중
2. 지원요건 : 소득 5분위 이하 학생 및 장애인, 탈북자 등 학생부생
3. 신청기간 : 2018. 4. 27(금) 18:00
4.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5. 면접시험 : 2018. 5. 2(화) 14:00 예정
6. 합격발표 : 2018. 5. 4(목) 18:00 예정

/ 이강희 기자

치위생과 제14회 치위생사 선서식 실시

4월 6일 대강당에서 제 14회 예비치과 위생사 선서식이 진행됐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초를 들고 선서를 읽는 학생들의 표정은 경건해보였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기영 교수는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는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한 선서가 학생들의 마음속에 간직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계단 설치 및 주차장 확충 공사 완공



17학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 정문 입구로 통하는 도로와 강의동으로 통하는 계단 외부 주차장 확장 공사가 이번 6월에 완공되었다. 재정비한 정문 도로에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가로등이 설치되었으며 강의동과 야외 주차장이 확장됨에 따라 학교 내 치안 유지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강의동으로 연결된 계단은 주차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언제나 주차장이 모자라 불편을 겪던 교내 직원과 학생들은 주차장 시설 개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박시연 기자

201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안내

- 201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정한 시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학생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특히, 시험 부정행위에 따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시험 부정행위자 징계기준을 공지하오니, 투명하고 공정한 시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학생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기말고사기간 : 2018.06.15.(금) ~ 06.21(목)
 - 시험장소 : 각학과별 지정강의실
 - 시험응시 시 유의사항
 - 시험 강의실에 핸드폰 등 전자제품 전원을 Off할 것.
 - 시험 시작 전 신분증과 필기도구를 제외한 모든 소지품을 가방 안에 정리하여 내려놓을 것
 - 부정행위자는 성적 무효 처리와 함께 징계 조치함.
- 한편 2018학년도 성적열람기간은 2018년 6월27(수)~06.28(목)이다. / 이강희 기자

교육봉사활동 - 유치원 어린이들과 2주간의 체험

4월 23일 첫날, 나긋한 봄바람에 부슬비가 내리던 날 성균관 숲유치원으로 교육봉사활동을 2주 동안 나갔다. 입구에서 긴장으로 숨이 턱턱 막혀발을 쉽게 떼 수 없었던 기억이 선명하다. 연못 물고기를 보며 심호흡만 10분간했던 것 같다.

교실을 배정받고 앞에 선 그순간이 대입면접보다 떨렸고 아이들은 어떤 면접관보다도 질문이 많았는데 나이부터 이유까지 물어보더라. 유치원에서 아이들은 원래 날 있던 사람처럼 스스럼없이 불러주었고 바깥놀이엔 반드시 끼워주었는데 스스럼없이 대해 주는게 겁 많은 나로서는 무척 고마웠다.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그리도 밝은 얼굴로 말을 걸고, 안기고,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지 숲으로 가는 길마다 선생님은 처음 와보니 내가 안내해줄게요! 라고 말하는 조그마한 입이 얼마나 다정한지 내가 걱정할 세계와는 너무 달랐다.

하루는 행사로 모든 선생님이 분주해 옆반을 바달라고 하셨다. 옆반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있으니 한 친구가 왜 거기 있냐며 우리 선생님이라고 손 붙잡고 우리 반으로 왔다. 그 친구가 '담당반 아이들'에서 '우리 애들'이 되고 우리 반 아이들 이 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듣는 모든 단



어들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걸 알았을 즈음에는 '난 정말 교사구나'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새 유치원 일정에 발맞추는 게 수월해졌다. 바깥 놀이하는 아이들을 보다 연못에서 심호흡하는 내가 떠올랐다. 실수할까 두렵고 해낼 자신도 없어 졸업해 취업은 커녕 감히 손도 못떨 것 같던 것이 지금은 자부심까지 느껴져왔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말할 때 안아주는 친구들과 섭섭해 하며 손을 잡아주던 친구들을 잊을 수 없다.

일주일이 내게 이렇게 큰 변화를 안겨 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현장에 다녀 오기 전과 지금의 내가 너무 다르게 느껴

진다. 2년하고 반 학기를 보내며 지금보다 확고하게 적성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난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리라 확신한다. 숲에만 가면 뜨거운 물에 탄 커피처럼 순식간에 피지던 아이들의 에너지가 나의 에너지가 되어 피로를 느낄 새라 손을 이끌던 아이들에게 무척 고마워. 너희의 배려가 부족하나의 배려보다 컸기에 여기 있을 수 있었어.

교사로 남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성균관 숲유치원 원장님, 아침햇살반 친구들과 담임선생님 아울러 유치원 교직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교육 봉사생 박시연

대학생활

고구려인이 되고 1학기를 마무리 지으며

안금옥(평생교육복지과 1학년)

연초록 어린잎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계절이 옛그제 같은데 푸르른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이 왔다.

그 봄 나의 나이를 잊고 풋풋한 새싹 같은 마음으로 캠퍼스로 향했다.

몸은 오심을 훌쩍 넘었지만 마음은 스무 살 꽃피는 봄날처럼.....

처음엔 과연 할 수 있을까 했지만 하루 이틀 할 달 두 달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늦게 내린 결정이지만 참 잘한 것 같다.

늦었다고 생각한 이순간이 가장 빠른 시기라는 것을.....

머리색은 하얗게 변해가지만 나에게 온 이런 기회가 참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하고 배울 수 있는 기쁨을 글로 표현하기가 부족한 것 같다.





학생 칼럼

최지혜 기자

연초에현직 검사가 검찰내의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다. 이후 연예계 정치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유명인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발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고발 움직임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며칠 전에는 여성 1만여 명이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 모여 불법 촬영성 편파수사 규탄 시위를 열었다. 많은 여성들이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를 한다고 반발하며 시위에 참여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여성인권문제로 시작된 미투운동이 자칫 남녀 간의 성대결로 비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충격적인 미

미투운동과 남녀갈등

투운동이 사회의 뜨거운이슈로 부상하면서남자들 사이에서는 펜스롤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펜스롤이란 미국의 펜스부통령이 불필요한 성적 논란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제외한 다른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는규칙을 철칙으로 삼으면서 유명해졌다. 남녀 단 둘이 있는 것을 금기화함으로써 오해의 씨앗조차 처음부터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정몽구 현대차회장이 아내와 사별 후에 측근과 보좌진 등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남성으로 바꾸었다는 기사가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사실 이 룰은 결혼하면 이혼할 수 있으니 결혼 하지마라, 밤에 돌아다니면 강도를 만날 수 있으니 밖에 나가지 마라 는 말과 같이 잘못된 전제를 진실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 펜스롤에 대해 동조하는 남성들이 꽤 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여자들의 미투운동과 남자들의 펜스

롤이 남녀대결양상으로 진행되는 최근의 양상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직장 내에서 회식도 남녀가 따로 하고, 업무지시도 전화와 메신저로 하며, 미투가 무서워서 노래방이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미투 운동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성폭행이나 성추행범의 개념을 정확히 인식 시킴으로써 남녀가 조화롭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남자들이 혹여 오해의 소지를 만들까봐 매순간 조심할 바엔 아예 여사원들과 부딪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여성들의 업무 참여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부족하다보니 잘못된 예방 방식을 택하는 분위기로나가며 미투운동이 남용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에서 배우 캐트린 르뇌브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여성인사 100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미투 캠페

인에 비판적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성폭행은 범죄지만 사전 동의가 없는 구애 행위를 전부 성폭행으로 몰아붙이면 성적인 자유가 오히려 축소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멀게는 30년 전에 저지른 행위를 꼬집어내 남성들에게 공개 자백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사회에 전체주의의 기운을 드리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투운동이 잘못된 남녀 대결구도로 나아가고 있는 점은 바뀌어야 한다. 미투 운동은 남녀간 성대결이 아니라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미투의 고발대상은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지 남녀 전체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남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여성만이 피해자이며 남성들의 행동을 잘못된 것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너무나도 다른 존재인 남성과 여성이 배타적남녀문화에서 벗어나 조화롭게 어우러져살아가는 균형 잡힌 남녀문화로 정착시켜나가야 한다. 미투운동이 우리사회가 남녀 간에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승화되길 바란다.

치과위생사 선배와의 만남

3월 9일 금요일 대강당에서 치위생과 OT가 끝난 후 선배와의 만남이 진행되었다. 박효은, 이수진, 이서연 선배들이와 주셨고 후배들을 위해 음식을 해오셨다. 재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선

배들은 국시를 어떻게 봐야할지, 치과위생사로 나아가야할 방향 같은 팁들을 제시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마쳤다.

/ 박시연 기자



MT 1박 2일 해남에서 개최 단합 가져

2018학년도 4월 11일 총학생회가 출범하며 총학 MT를 전남 해남군에서 1박 2일 동안 주최했다. 첫맛을 밟아보는 등 체험을해보고 강사를 초빙해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등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학생회는 1박 2일 동안의 시간을 단합을 가지는 데 중요한의의를 두었다. /박시연 기자



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고구려대학교 신문사와 함께할 학생기자를 모집합니다. 함께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신문사의 학생기자 생활은 대학생活的 좋은 추억과 보람이 될 것입니다.

- ◆ 문의 사항: 고구려대학교 신문사
- ◆ 모집 인원: 학기초 약간명

원고모집

여러분의 글, 학우들의 재밌고 감동적인 글을 기다립니다. 자유로운 글로 누구나 웃고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를 모집합니다.

- ◆ 주제: 자유 글시, 감상문, 수필, 논설문 등
- ◆ 전화 | 061-330-7431
- ◆ E-mail cskang@kgrcackr
- ◆ 기사체보 및 원고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125 본관 409호실 고구려대학교신문사

우리학교 건강지킴이

허리가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평소 시 바른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허리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허리애편 때 좋은 자세 몇 가지를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통증이 덜하면서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eal Stretch 또는 코브라 자세라는 것인데요. 바닥에 엎드린 자세에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상체를 뒤로 당겨주면 복부가 자극이 되면서 허리 주변의 근육들로 자극이 됩니다. 허리가 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스트레칭입니다. 이 자세를 5초씩 유지하고 얼굴을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근육들이 자극이 되니 참고하세요. 허리 애편 때 좋은 자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세 및 운동법이라고 볼 수 있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육상선수 같은 느낌으로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허리와 골반 등이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동작으로 어깨는 바닥에 붙이는 것이 중요하고 시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칭 하는 발과 반대쪽에 시선을 줘야 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통증이 있다면 동작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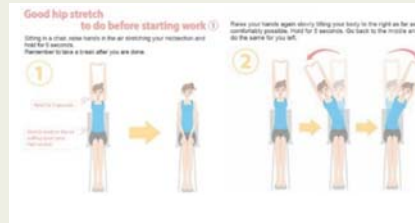
세 번째는 자세는 사무실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자세로 의자위에서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우선 의자에 바로 앉아 허리를 바로 세우고 손을 깎지킨다고 좌우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유연성에 따라서 통증이 오지 않는 만큼 하시고 약간의 자극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자세 역시 의자에서 하는 스트레칭인데요. 허리 애편 때 좋은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게 의자에 앉을 때 바로 앉는 것인데, 이렇게 바로 앉아 있는 자세에서 몸을 좌우로 틀어주는 동작입니다. 시선도 함께 따라가면서 허리에 자극이 되도록 쪽씩 틀어줍니다.

그 밖에도 허리 애편 때 좋은 자세는 많습니다. 어떤 동작이든 무리가 되지 않도록 자극을 주고 골반이나 허리가 바른 자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



고 허리가 약한 사람들의 경우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에 말에 따르면 허리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리 주변의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통증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들 대부분이 허리 주변 근육이 약하다고 하네요. 특히 대둔근 근육이 튼튼하면 허리를 잘 받쳐주기 때문에 허리 건강을 위해 평상시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해주기 바랍니다. 스쿼트나 런지 등이 도움이 됩니다.

/ 최지혜 기자

★ 퍼즐 맞추기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가로열쇠)

- 미래의 행복만을 꿈꾸며 현재의 일에 흥미나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중후군. 별기에 작가 마티를링크의 동화극 제목에 나오는 새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피를 뽑아주었음을 증명하는 증서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이르는 말.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독창이나 독주, 관현악의 어떤 부분을 단독의 주자가 연주하는 일
2. 이성 친구 또는 애인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
-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일. 부동산을 돌려줄 때는 맡긴 돈 잔액을 되돌려 받는다.
- 씩씩하고 원래 상태에 가까운 모습으로 남아 있는 인간이나 동물의 사체. 이집트 피라미드 등에서 발견되는 것이 특히 유명하다.
- 610년에 아라비아의 예언자 마호메트가 창시한 종교. 세계 3대 종교의 하나로 이슬람교라고도 부른다.
- 음력 5월 5일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 여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며 남자는 씨름을 하는 풍습이 있다.
- 흔히 형제, 자매의 자식을 이르는 말. 자신으로부터 2촌인 형제의 자녀, 즉 3촌 관계에 있는 한 세대 아래의 남자를 일컫는 호칭이다.
- 사람이 기른 산삼, 산삼의 씨를 깊은 산속에 뿌려 야생 상태로 재배한 것으로, 산양삼 이라고도 부른다.
1. 웃어른 앞에서 자기 남편을 낮추어 이르는 말.
2. 남편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 막대기처럼 가늘고 길쭉한 모양의 프랑스 빵. 겉껍질이 단단하여 씹으면 파삭파삭 소리가 난다.

(세로열쇠)

- 주로 해수욕장에서 햇볕을 가리기 위해 쳐 놓은 큰 양산. 햇볕을 막아주어 한여름 자외선 차단에 효과적이다.
- 새로 지은 건물의 건축 자재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들로 인해 발생하는 병적인 증상을 '오존후군' 이라고 한다.
- 국가의 통치 조직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근본 규범.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 변경할 수 없는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 증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 상속세의 보원의 의미를 갖는 세금이다.
- 긴 널빤지의 한가운데를 괴어 놓고, 양쪽 끝에 사람이 타고 서로를 오르락내리락하는 놀이 기구.
- 1697년 발표된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등장하는 주인공. 원수 가문의 딸인 줄레엣과 비극적인 사랑을 나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줄여서 이르는 말. 교직원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획득 및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해 1989년 설립되었다.
- 무릎 말리거나 소금에 절인 다음 물기를 빼고 소금과 쌀겨를 섞은 데에 파묻어 만든 음식. 주로 중국음식의 밑반찬으로 많이 사용된다.
-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신경 계통 전체의 중추적 작용을 하며, 고등 동물일수록 발달되어 있고, '큰뇌' 이라고도 부른다.
- 인도의 세습적 계급 제도. 승려계급인 브라만, 귀족계급인 크샤트리아, 평민의 바이사, 노예인 수드라의 네 계급을 기원으로 한다.
- 중국 삼국시대 촉나라의 장수. 유비, 관우와 함께 의형제를 맺었으며 많은 전투에서 용맹을 떨쳤다.
- 브라질 흑인계 주민의 춤 또는 그 춤곡. 4분박자로 매우 빠르고 정열적이며, 브라질에서 열리는 '리우카니발'을 흔히 '오존후군'이라고 부른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치매조기검진」교육



고구려대학교 노인복지센터는 소강당에서 지난 4월 16일 나주시 치매안심센터의 진행으로 치매안심센터의 홍보 및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나주시 관내 독거어르신들에게 치매조기선별검사방법을 배우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치매검진교육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의 치매선별검사 진행으로 나주시 관내 독거어르신들의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악화되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어 어르신들이 보다 더 건강한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보탬이 될 것이다. / 이강희 기자



추천 영화 안내



▲ 내가 죽기 전에 가장 듣고싶은 말



▲ 그날, 바다



▲ 인생은 아름다워

※ 영화 추천 : 선정 기준은 학생들의 의견으로 받고 있습니다.

고구려대학교 발전기금 안내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전문직업인, 창의적 인재, 사회적 인재」의 3대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 고구려대학교에서 대학발전기금을 모금합니다. 여러분이 출연해 주시는 발전기금은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교육 시설과 학생 후생 복지시설을 확충하며 "세계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 입니다.

고구려대학교 행정복지처



고구려대학교

◆ 발전기금의 종류

- 가. 일반 기금 :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대학에 위임하여 출연금 기금
- 나. 지정 기금 : 기부자가 특정한 학과의 장학금이나 사업 등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

◆ 발전기금의 사용처

- 가. 장학금지급 및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
- 나. 대학중장기 발전기획 및 특성화 추진지원 사업
- 다. 세계화 시대에 따른 국제교류지원 사업
- 라. 기부자의 희망하는 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업 등

◆ 기부안내

- 가. 약정하기(개인, 법인 및 단체)
 - ① 온라인 약정 ② 팩스, 이메일 우편 약정(약정서 다운로드)
 - ③ 전화 약정 ④ 방문약정
 상담전화 : 061)330-7342
 이메일 : sykim@kgc.ac.kr, 팩스 : 061)330-7346
 우편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125
 고구려대학교 행정복지처(58280)

나. 납입하기

- ① 무통장 입금(농협 : 301-0123-3670-61)
- ② 방문납입
- ③ 기타 자산기부